

2026년 3월 중고차 등록(판매) 동향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Korea Auto Auction Association

2026년 3월 중고차 유통/등록 현황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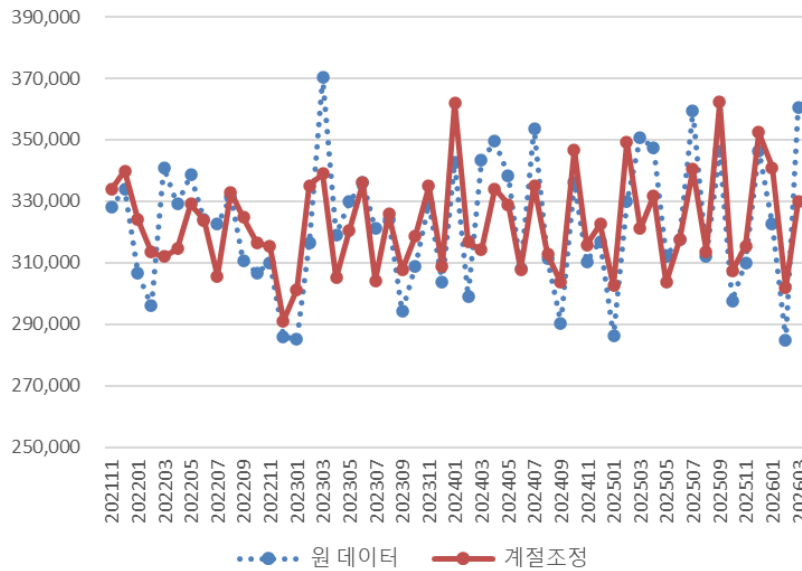
1. 3월 중고차 유통/등록 현황

2024년까지 월평균 325,000대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던 중고차 거래량은 2025년 들어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시장 내 거래 심리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26년에 진입하면서 계절적 요인을 상회하는 등락이 반복되는 변동성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연속적으로 발생했던 큰 폭의 거래 감소 이후, 3월에는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며 기존의 우상향 추세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은 중고차 시장의 원 데이터(Raw Data)와 계절 조정 수치를 동시에 제시하여 시장의

실질 변동성과 계절적 요인을 배제한 기저 흐름을 함께 보여준다. 3월의 경우 전월 대비 괄목할 만한 거래량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계절 조정 기준에서도 증가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3월의 반등이 단순한 계절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시장 전반의 거래 활성화가 반영된 실질적인 호조세임을 뒷받침한다.

<그림 1> 중고차 등록 월별 추세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1> 2026년 3월 중고차 거래 요약

	전체	국산	수입	전기차 부문	
				EV	HEV
3월 중고차 등록	360,388	298,787	61,601	12,938	28,000
전월대비%	26.48	26.42	26.75	40.49	27.31
전년동월대비%	2.73	2.46	4.08	47.26	31.20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1>은 2026년 3월 중고차 거래 현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전체 거래량은 전월 대비 26.48%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2.73%의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전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며 시장 전반의 활기를 더했다.

특히 전동화 차량의 구조적 성장 흐름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관찰된다. 전기차는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모두 4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하이브리드 세그먼트 역시 전월 대비 27.31%, 전년 동기 대비 31.20% 증가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신차 시장에서 시작된 친환경차 선호 현상이 중고차 유통 시장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2026년 3월 중고차 Top 30 모델 (국산)

순위	모델명	26년 01월	26년 02월	26년 03월	평균차령	평균주행거리	평균가격
1	모닝 (ICE)	14,475	12,677	15,902	11.5	97,264	3,707,695
2	그랜저 (ICE)	14,580	12,513	15,668	9.0	128,892	10,634,249
3	아반떼 (ICE)	13,482	12,012	14,906	9.7	101,172	6,903,105
4	쏘나타 (ICE)	10,592	9,230	11,497	10.2	144,582	6,895,462
5	레이 (ICE)	8,221	7,747	10,057	7.2	82,155	7,742,979
6	싼타페 (ICE)	7,877	6,877	8,433	9.4	130,854	11,135,660
7	카니발 (ICE)	7,782	6,675	8,219	6.8	115,442	15,211,904
8	K5 (ICE)	7,193	6,392	8,085	9.1	126,242	8,493,423
9	쏘렌토 (ICE)	6,367	5,777	6,791	8.7	125,079	12,773,788
10	G80 (ICE)	6,441	5,362	6,398	5.4	89,286	25,394,487
11	스포티지 (ICE)	5,736	5,233	6,187	8.7	114,090	10,370,549
12	투싼 (ICE)	5,495	4,765	5,899	9.4	121,967	9,226,000
13	K3 (ICE)	4,509	4,241	5,389	8.7	98,320	6,985,461
14	K7 (ICE)	4,343	3,973	4,819	9.7	138,407	8,263,862
15	스파크 1.0 (ICE)	3,633	3,416	4,330	8.4	80,263	4,346,725
16	스파크 1.0 DOHC (ICE)	3,848	3,343	4,267	12.9	107,499	1,614,903
17	티볼리 (ICE)	3,424	3,197	3,790	7.8	87,945	7,155,569
18	팰리세이드 (ICE)	3,330	2,916	3,643	4.6	76,115	23,600,789
19	셀토스 (ICE)	2,922	2,763	3,529	4.2	56,724	16,086,349
20	QM6 (ICE)	3,226	2,630	3,215	6.0	87,548	11,280,153
21	캐스퍼 (ICE)	2,445	2,383	2,995	3.1	35,483	13,196,279
22	GV80 (ICE)	2,623	2,313	2,696	4.0	71,299	39,103,145
23	그랜저 (HEV)	2,706	2,197	2,671	4.2	75,065	22,672,971
24	쏘렌토 (HEV)	2,113	1,964	2,561	3.3	54,738	26,104,470
25	SM6 (ICE)	2,265	2,074	2,558	8.5	115,645	5,571,947
26	제네시스 (ICE)	2,492	2,103	2,480	12.8	164,780	5,426,304
27	SM3 (ICE)	2,216	1,914	2,341	13.4	121,926	1,687,876
28	SM5 (ICE)	2,196	1,881	2,228	14.2	138,091	1,658,473
29	모하비 (ICE)	1,916	1,732	2,048	8.8	145,909	15,494,669
30	GV70 (ICE)	1,735	1,699	2,035	3.7	51,948	31,714,483
Top 30 총 등록대수		160,183	141,999	175,637			
TOP 30 가중평균 가격 (천원)		10,652	10,625	10,558			
Top 30 매출액 (10억원)		1,706	1,509	1,854			

※ 스파크 1.0: 2016 모델연도, 1.0DOHC: 2012 모델연도. 주행거리는 Km. 가격은 KRW.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2>는 3월 기준 국산 중고차 상위 30개 모델의 거래 현황을 제시한다. 국산 중고차 시장은 상위 20개 모델이 모두 내연기관차로 구성되어 있어, 전동화가 가속화되는 신차 시장과는

뚜렷하게 대비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20위에서 30위권 구간 내에서도 그랜저와 쏠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차종이 모두 내연기관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Top 30 모델의 거래량은 총 175,637대로 전체 중고차 거래의 48.7%를 점유하며 높은 시장 집중도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거래 가격은 1,000만 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신차 Top 30 평균 가격의 약 26% 수준에 해당한다. 예년의 가격 비율이 30%를 상회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급격한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두 시장 간의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격 경쟁력은 중고차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중고차 잔가 하락이 신차 리스 및 렌트로 상승을 유발하는 등 신차와 중고차 시장 간의 구조적 연쇄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표 3> 2026년 3월 중고차 Top 30 모델 (수입차)

순위	모델명	26년 01월	26년 02월	26년 03월	평균차령	평균주행거리	평균가격
1	QM3 (ICE)	1,081	948	1,197	10.4	123,523	3,520,483
2	BMW 520d (ICE)	930	757	914	11.2	172,853	8,798,635
3	E300 (ICE)	579	560	729	10.4	111,792	13,073,148
4	Mercedes-Benz E250 (ICE)	604	495	694	4.4	52,105	30,246,759
5	Model 3 Long Range (EV)	599	455	640	4.6	81,222	25,596,897
6	렉서스 ES300h (HEV)	578	483	600	6.0	81,475	27,378,585
7	BMW 320d (ICE)	559	442	566	10.5	139,129	9,176,953
8	BMW 320i (ICE)	450	422	549	7.0	73,645	21,042,074
9	BMW 520i (ICE)	438	402	502	5.0	65,579	28,106,223
10	Mercedes-Benz E350 4MATIC (HEV)	351	353	497	4.4	55,292	36,062,203
11	BMW X3 (ICE)	443	389	475	7.4	98,597	27,258,503
12	E300 4Matic (ICE)	426	319	438	8.7	102,508	16,996,287
13	Model Y RWD (EV)	306	265	390	1.8	28,367	33,004,789
14	MINI Cooper (ICE)	296	288	379	9.9	81,772	8,387,288
15	BMW 528i (ICE)	368	265	364	13.9	148,198	4,835,370
16	BMW 520d xDrive (ICE)	349	287	348	9.9	154,341	11,871,517
17	BMW 530i (ICE)	323	294	324	6.3	81,164	26,713,115
18	Explorer 2.3 AWD (ICE)	248	262	313	8.7	109,300	12,175,694
19	BMW 118d (ICE)	264	226	294	9.1	117,989	10,637,453
20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ICE)	278	208	291	9.1	131,736	7,443,846
21	A6 45 TFSI quattro (ICE)	212	213	284	5.1	63,452	29,103,734
22	Model Y Long Range (EV)	244	219	279	3.2	56,950	33,161,265
23	BMW 530i xDrive (ICE)	283	212	271	6.9	90,700	24,409,615
24	E220 d (ICE)	257	216	265	8.7	129,122	15,539,827
25	MINI Cooper five-door (ICE)	180	192	257	6.4	54,745	14,313,765
26	Tiguan 2.0 TDI Blue Motion (ICE)	193	181	257	12.1	157,141	4,919,565
27	CHEVROLET BOLT EV (EV)	198	181	255	6.8	119,475	11,544,958
28	CHEVROLET IMPALA 2.5 (ICE)	201	168	249	9.9	125,553	4,781,140
29	A6 40 TDI (ICE)	252	212	244	5.6	77,852	21,813,714
30	BMW 520i (HEV)	167	191	233	1.6	16,116	49,080,995
Top 30 총 등록대수		10,576	9,157	11,901			
TOP 30 가중평균 가격 (천원)		19,357	19,677	19,690			
Top 30 매출액 (10억원)		209	184	239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정보협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3>은 3월 기준 수입 중고차 상위 30개 모델의 현황을 제시한다. 수입 중고차 시장 역시 신차 판매 순위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위 10개 모델 중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 렉서스 ES300h, 벤츠 E350 4매틱 등 3개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내연기관차가 차지하였다.

지난 1~2월 대비 벤츠 E350 모델이 상위권에 추가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은 여전히 본격화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는 중고차 시장에서 핵심적인 선택 기준이 되는 차량 내구성에 대해 친환경차 모델들이 축적된 경험적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수입 중고차 시장은 아직 전동화 모델에 대한 신뢰성 검증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2026년 3월 국산 중고차 Top 30 지역별 판매 및 비중

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비중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모닝 (ICE)	6,592	4,519	2,433	1,552	557	249	41.5	28.4	15.3	9.8	3.5	1.6
2	그랜저 (ICE)	7,950	4,050	1,594	1,648	245	181	50.7	25.8	10.2	10.5	1.6	1.2
3	아반떼 (ICE)	6,872	3,948	1,911	1,648	301	226	46.1	26.5	12.8	11.1	2.0	1.5
4	쏘나타 (ICE)	5,366	3,071	1,398	1,345	192	125	46.7	26.7	12.2	11.7	1.7	1.1
5	레이 (ICE)	5,718	2,311	1,131	579	175	143	56.9	23.0	11.2	5.8	1.7	1.4
6	싼타페 (ICE)	4,159	2,183	926	844	185	136	49.3	25.9	11.0	10.0	2.2	1.6
7	카니발 (ICE)	4,739	1,666	861	727	101	125	57.7	20.3	10.5	8.8	1.2	1.5
8	K5 (ICE)	4,132	1,760	977	955	121	140	51.1	21.8	12.1	11.8	1.5	1.7
9	쏘렌토 (ICE)	3,681	1,476	670	749	116	99	54.2	21.7	9.9	11.0	1.7	1.5
10	G80 (ICE)	3,463	1,684	495	581	55	120	54.1	26.3	7.7	9.1	0.9	1.9
11	스포티지 (ICE)	3,321	1,262	688	688	114	114	53.7	20.4	11.1	11.1	1.8	1.8
12	투싼 (ICE)	2,935	1,520	663	548	133	100	49.8	25.8	11.2	9.3	2.3	1.7
13	K3 (ICE)	2,656	1,245	671	599	118	100	49.3	23.1	12.5	11.1	2.2	1.9
14	K7 (ICE)	2,428	1,191	521	569	70	40	50.4	24.7	10.8	11.8	1.5	0.8
15	스파크 1.0 (ICE)	2,327	1,011	545	251	130	66	53.7	23.3	12.6	5.8	3.0	1.5
16	스파크 1.0 DOHC (ICE)	1,905	1,130	695	330	125	82	44.6	26.5	16.3	7.7	2.9	1.9
17	티볼리 (ICE)	1,804	966	490	374	105	51	47.6	25.5	12.9	9.9	2.8	1.3
18	팔리세이드 (ICE)	2,097	925	281	238	29	73	57.6	25.4	7.7	6.5	0.8	2.0
19	셀토스 (ICE)	1,875	853	333	370	47	51	53.1	24.2	9.4	10.5	1.3	1.4
20	QM6 (ICE)	1,811	737	299	286	50	32	56.3	22.9	9.3	8.9	1.6	1.0
21	캐스퍼 (ICE)	1,704	775	281	161	46	28	56.9	25.9	9.4	5.4	1.5	0.9
22	GV80 (ICE)	1,465	736	172	219	17	87	54.3	27.3	6.4	8.1	0.6	3.2
23	그랜저 (HEV)	1,422	769	204	201	22	53	53.2	28.8	7.6	7.5	0.8	2.0
24	쏘렌토 (HEV)	1,545	554	194	211	28	29	60.3	21.6	7.6	8.2	1.1	1.1
25	SM6 (ICE)	1,384	603	280	229	50	12	54.1	23.6	10.9	9.0	2.0	0.5
26	제네시스 (ICE)	1,177	734	259	237	51	22	47.5	29.6	10.4	9.6	2.1	0.9
27	SM3 (ICE)	1,054	634	317	232	63	41	45.0	27.1	13.5	9.9	2.7	1.8
28	SM5 (ICE)	1,089	593	268	186	62	30	48.9	26.6	12.0	8.3	2.8	1.3
29	모하비 (ICE)	1,025	494	226	220	55	28	50.0	24.1	11.0	10.7	2.7	1.4
30	GV70 (ICE)	1,186	549	110	114	20	56	58.3	27.0	5.4	5.6	1.0	2.8
산술 평균 비중								51.8	25.0	10.7	9.2	1.8	1.5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4>는 국산 중고차의 지역별 판매 현황을 제시한다. 해당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수치는 각 지역 내 거래 비중 상위 30%를 상회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전체 거래 구조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Top 30 모델 거래 물량의 과반을 점유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영남권(25.0%), 충청권(10.7%), 호남권(9.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강원과 제주 지역의 등록 비율은 모두 2% 미만에 그쳤으며, 이들 지역에서 두드러진 특정 모델의 집중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판매 상위 4개 모델이 영남, 충청, 호남 등 전국 주요 지역에 걸쳐 고르게 최상위권에 랭크되었다. 이는 해당 모델들에 대한 수요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 2026년 3월 수입 중고차 Top 30 지역별 판매 및 비중

순위	모델명	판매대수						비중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강원	제주
1	QM3 (ICE)	576	320	135	99	38	29	48.1	26.7	11.3	8.3	3.2	2.4
2	BMW 520d (ICE)	501	256	87	59	6	5	54.8	28.0	9.5	6.5	0.7	0.5
3	E300 (ICE)	474	170	45	31	8	1	65.0	23.3	6.2	4.3	1.1	0.1
4	Mercedes-Benz E250 (ICE)	394	218	35	29	3	15	56.8	31.4	5.0	4.2	0.4	2.2
5	Model 3 Long Range (EV)	452	133	24	20	4	7	70.6	20.8	3.8	3.1	0.6	1.1
6	렉서스 ES300h (HEV)	377	170	18	29	3	3	62.8	28.3	3.0	4.8	0.5	0.5
7	BMW 320d (ICE)	380	98	48	32	5	3	67.1	17.3	8.5	5.7	0.9	0.5
8	BMW 320i (ICE)	397	101	26	20	2	3	72.3	18.4	4.7	3.6	0.4	0.5
9	BMW 520i (ICE)	351	104	22	18	2	5	69.9	20.7	4.4	3.6	0.4	1.0
10	Mercedes-Benz E350 4MATIC (HEV)	317	120	17	29	3	11	63.8	24.1	3.4	5.8	0.6	2.2
11	BMW X3 (ICE)	353	69	19	24	5	5	74.3	14.5	4.0	5.1	1.1	1.1
12	E300 4Matic (ICE)	287	82	19	41	4	5	65.5	18.7	4.3	9.4	0.9	1.1
13	Model Y RWD (EV)	310	52	18	6	2	2	79.5	13.3	4.6	1.5	0.5	0.5
14	MINI Cooper (ICE)	240	72	35	23	5	4	63.3	19.0	9.2	6.1	1.3	1.1
15	BMW 528i (ICE)	219	83	37	17	6	2	60.2	22.8	10.2	4.7	1.6	0.5
16	BMW 520d xDrive (ICE)	244	62	16	22	4	-	70.1	17.8	4.6	6.3	1.1	0.0
17	BMW 530i (ICE)	223	67	21	11	-	2	68.8	20.7	6.5	3.4	0.0	0.6
18	Explorer 2.3 AWD (ICE)	222	47	27	14	1	2	70.9	15.0	8.6	4.5	0.3	0.6
19	BMW 118d (ICE)	214	55	18	6	1	-	72.8	18.7	6.1	2.0	0.3	0.0
20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ICE)	188	46	29	20	5	3	64.6	15.8	10.0	6.9	1.7	1.0
21	A6 45 TFSI quattro (ICE)	194	49	15	17	3	6	68.3	17.3	5.3	6.0	1.1	2.1
22	Model Y Long Range (EV)	203	47	9	12	2	6	72.8	16.8	3.2	4.3	0.7	2.2
23	BMW 530i xDrive (ICE)	195	43	9	19	3	2	72.0	15.9	3.3	7.0	1.1	0.7
24	E220 d (ICE)	173	59	18	11	2	2	65.3	22.3	6.8	4.2	0.8	0.8
25	MINI Cooper five-door (ICE)	173	46	13	23	2	-	67.3	17.9	5.1	8.9	0.8	0.0
26	Tiguan 2.0 TDI Blue Motion (ICE)	203	26	14	7	7	-	79.0	10.1	5.4	2.7	2.7	0.0
27	CHEVROLET BOLT EV (EV)	138	71	25	14	3	4	54.1	27.8	9.8	5.5	1.2	1.6
28	CHEVROLET IMPALA 2.5 (ICE)	143	48	32	19	7	-	57.4	19.3	12.9	7.6	2.8	0.0
29	A6 40 TDI (ICE)	178	34	18	13	-	1	73.0	13.9	7.4	5.3	0.0	0.4
30	BMW 520i (HEV)	152	52	9	20	-	-	65.2	22.3	3.9	8.6	0.0	0.0
산술 평균 비중								67.2	19.7	6.2	6.1	0.9	0.8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정보학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표 5>는 수입 중고차의 지역별 판매 현황을 나타낸다. 수도권과 영남권이 Top 30 모델 거래 물량의 86.9%를 점유하며, 지난 2월(87.7%) 대비 집중도가 소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지역에 거래가 편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은 각각 6.2%와 6.1%의 비중에 머물러, 인구 규모 대비 시장 내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극심한 지역적 편중 현상은 수입 중고차 거래가 단순한 소비자 수요를 넘어 금융사의 사용본거지 등록 현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2. 중고차 차령 및 주행거리

<그림 2>는 2026년 3월에 거래된 중고차 중 승용차와 승합차의 연식 분포 및 주행거리 패턴을 나타낸다. 승용 중고차의 경우 4~6년 차 차량의 거래 비중이 가장 높게 형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3~6년 차와 7~12년 차 구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이봉(Bi-modal) 형태의 분포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식 패턴은 일정한 형태를 지속하며 고착화되고 있는데, 일반적인 단일 정규분포와 달리 두 개의 정점(Peak)이 관찰된다는 점은 시장 분석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포는 중고차 거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운행 및 교체 패턴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중고차 잔존가치 예측 모델을 구축할 때 이러한 이봉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모델의 신뢰도 저하와 함께 상당한 예측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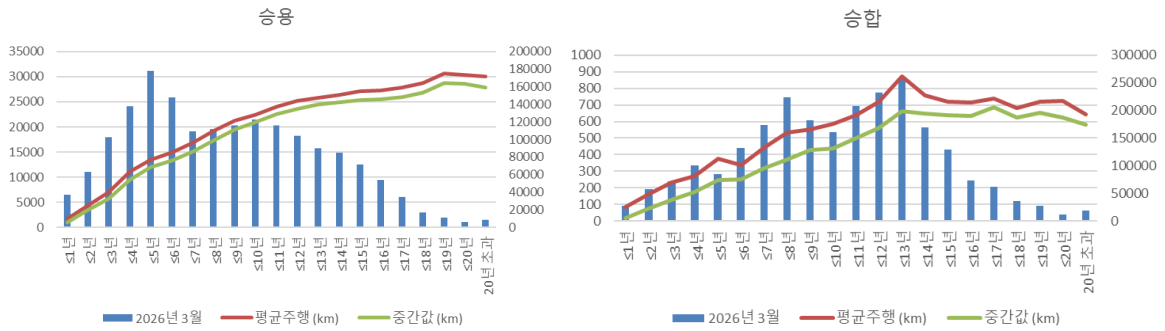
주행거리의 경우, 평균 주행거리가 중간값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가운데 연식 증가에 따라 체감적으로 상승하는 제곱근 형태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연식이 경과함에 따라 연간 주행거리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누적되는 시장의 전형적인 운행 패턴이 데이터로 입증된 결과로 풀이된다.

승합 중고차는 승용 중고차와는 차별화된 고유의 거래 패턴을 나타낸다. 연식별로는 13년 차에서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7~9년 차 구간에서도 비교적 높은 거래량이 관찰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두 개의 정점을 갖는 이봉(Bi-modal) 분포가 형성되었다.

특히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연식이 13년 차에 근접할수록 평균 주행거리와 중위수(Median) 주행거리 간의 격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다가, 해당 시점을 기점으로 다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13년 차 이전 구간에서 주행거리가 극단적으로 긴 차량들이 시장에 다수

유입되면서 평균값을 상향시킨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데이터 패턴은 승합차 시장이 특정 연식을 기점으로 운행 목적과 관리 상태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특성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 2026년 3월 연식별 중고차 거래대수 (승용 및 승합)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보처

3. 요약 및 시사점

2026년 3월 중고차 시장은 지난 1~2월의 급격한 거래 위축을 딛고 다시 기존의 우상향 추세로 회귀하며 반등에 성공하였다. 계절 조정 수치에서도 유의미한 증가폭이 관찰된 이번 결과는 단순한 계절적 변동을 넘어선 시장 전반의 활성화 신호로 평가된다.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년 대비 30~40%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동화 차량의 구조적 성장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신차 시장과의 극명한 대비가 지속되고 있다. 신차 시장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된 것과 달리, 중고차 거래 상위권은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고차 소비자들이 내구성과 잔존가치 데이터가 충분히 검증된 내연기관 모델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수입 중고차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은 해당 차량들의 장기적 신뢰성에 대한 시장의 신중한 평가 단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가격 및 매출 구조에서는 신차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격차 확대가 두드러진다. 중고차 평균 거래 가격이 신차 대비 약 26% 수준까지 하락하며 예년 대비 가격 경쟁력은 높아졌으나, 이는 동시에 중고차 잔가 하락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은 중고차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리스나 렌트 등 잔가 기반 금융 상품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향후 신차와 중고차 시장 간의 연쇄적인 구조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및 차량 특성 분석에서 나타나는 이봉(Bi-modal) 분포 구조는 정교한 시장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국산차 수요는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된 반면, 수입차는 수도권과 영남권에 80% 이상의 거래가 집중되는 비대칭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승용과 승합 중고차 모두 특정 연식 구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어, 단일 분포 모델을 활용한 기존의 잔존가치 예측 방식은 상당한 편차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고차 시장은 다중 분포 구조를 반영한 데이터 기반의 정교한 리스크 관리와 지역별·차종별로 세분화된 금융 전략이 요구되는 전문화된 국면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산하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연구소장

조 성봉

부소장
(운영총괄)

김 원태

책임연구원
(수원대/경영학부)

고 석빈 교수

이 분석 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문의는 전화 상담은 불가하며 홈페이지에 [문의하기] 또는 이메일 info@aaa-korea.com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